

# 한강 '소년이 온다'...오월 우리들 곁으로 왔다

## CULTURE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45주년 기념특별전

광주 진실 조명...프롤로그·본전시·에필로그 구성  
'한강 소설 구조' 반영...10월 19일까지 기록관 3층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김호균)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특별전을 지난 4월 29일 개막, 오는 10월 19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경신을 문학과 기록으로 새롭게 조명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문화와 기록, 감정과 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가치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소년이 온다'는 '누구이며, 왜 오게 됐고, 그가 오는 길은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전시 전체에 녹여 관람객 스스로가 그 답을 찾아가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3개의 본전시, 에필로그로 구성되며, 한강의 소설 구조를 반영해 감정의 서사를 따라 전개된다. 프롤로그는 '동호를 그리는 어머니' 영상과 함께 소설의 첫 페이지를 여는 문을 마련해 관람객이 감정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전시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1부 '소년을 부른 사람들'에서는 광주의 5월이 존재했었지만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름 없는 사라진 평범한 사람들(정미·정대 등), 그리고 처음부터 살아남으려 한 것이 아닌 사람들(은·숙·교대 북학생·진수·선주)을 통해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질 존재들을 주목한다.

여기다 '나의 너, 우리의 소년에게' 영상은 80년 5월을 경험한 다양한 인물들의 고통을 마주하게 하고 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폭력의 흔적을 행방불명자 명단, 진압봉, 방탄모를 통해 살피고, 분수대를 멈춰주세요(국가기록원 소장), 민영량 일기, 김영철의 편지, 등사기, 넘어 넘어 책자 등의 자료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고통, 연대가 살아난다. 이들은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말을 잃은 역사의 주체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어 제2부 '소년이 오는 길'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부각된다. 이 섹션은 소년이 남겨진 이유와 죄책감, 부끄러움, 분노, 공동체적 양심에 초점을 둔다. 동호가 끝내 도청에 남은 이유는 살아남은 자의 책임감이었으며, 분노는 이 전시의 정서를 확장시킨다. 시청각 자료, 수습학생시인 어께띠, 김승달일기, 김영택 취재수첩,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등의 성명서를 비롯한 기록물이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전달한다.

제3부 '소년이 여는 시간'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다시 현재가 과거를 살리는 광주정신의 가치를 조명한다. 이전의 감정들이 현재를 어떻게 열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광주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기억은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밝히는 힘이

이다. 이 섹션은 특히 광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광주정신의 인류적 가치를 강조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서의 소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판본, 청문회 영상, 시민들의 기록을 통해 광주는 '보통명사'로 자리잡는다. 더불어 '화면을 달리는 소년'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여정을 담아낸 진 경우 작가의 작품 '명화를 찾아서'(1987년 제작)를 만날 수 있다. 45년간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시간이 결국 현재에 닿아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에필로그 '오늘, 소년이 온다'는 관람객이 직접 문장을 필사하며 자신만의 '소년'과 마주하는 참여형 공간으로, 전시의 여운을 깊게 각인시키기 위해 섬세하게 마무리하는데 비중을 뒀다.

김호균 관장은 "문학을 통해 확장되는 5·18민주화운동은 과거와 현재, 우리가 연결돼 있음을 알려준다"면서 "오늘 우리에게 걸어오는 광주를 함께 마주하러 나와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엄마의 정원(오란)'

### 기쁨 안겨준 '꽃'...여백의 미학 상기 이미에 개인전 21일까지 이화갤러리

가족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고 있는 이미에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15일 개막, 21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소재 이화갤러리에서 '여백 아름답게 피우리다'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여백'의 의미를 반추할 이번 전시는 화폭 속 여백과 일상 속 여백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생기와 재미를 불어넣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마다 특정한 공간을 어떻게 채워볼까 하는 또 다른 생각을 불러들일 수 있는 공간에의 탐구로 일한다.

또 화폭 속 여백 못지 않게 중요한 인생의 여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순간들 사이의 간격들로 여유와 자유를 상징한다. 그러기에 인생의 여백은 일상 속에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다. 그것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잊고 지낸 소중한 감정이나 관계를 되새기는 순간이기도 하다. 여백이 있는 삶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빈 공간이 있기에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들어올 수 있으며,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시간이다.

작가의 화면에는 다양한 꽃들이 반발해 있다. 작가가 생각하는 꽃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기쁨과 활기를 느끼게 해주며, 각기 다른 계절이 주는 삶의 풍성함을 던져주고 있다. 꽃이 가지고 있는 본연에 모습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찾을 수 있어 저는 언제나 눈길을 빼앗기곤 한다는 전언이다.

꿈을 안고 그려보았던 어린 시절이 그 시절 그 여백 안에 남아있다는 작가는 그림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사회인, 아내, 엄마가 되면서 붓을 놓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와서 붓을 다시 들게 됐다고 한다. 작가는 이를 비어 있던 여백에 다시 꿈을 그려 넣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가는 "작은 그릇은 내 마음속 어머니의 작은 품을 나타낸다. 그릇에 꽃을 아름답게 피우게 하려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지탱해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도 자식에게 이쁨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5시, 고선주 기자

### 광주과학관,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7월 13일까지 격주 일요일 2회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주말 학부모 과학실험 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의 과학적 소양 함양과 더불어 생활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험하며 소통과 문제해결력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첫 강의를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격주로 일요일에 각 2회씩 진행된다. 오는 25일 '계면활성제에 대해 알아보는 친환경세제 활용법', 6월 15일 '적정온도와 습도를 알아보는 습기를 모아모아', 29일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알아보는 화학전지 시계', 7월 13일 '빛의 간섭에 대해 알아보는 홀로그램 입체영상' 등 매회 다양한 주제로 운영된다.

이정화 선임연구원은 "수업 이후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재료를 활용해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소통하며 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 광주극장서 다채로운 '영화 만찬' 즐겨볼까

5·18 최후 수배자 윤한봉 다룬 다큐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뉴스타파 압수수색 르포리타주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 등

5월 광주극장이 준비한 영화 만찬이 다채롭다.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뉴스타파의 7년 전쟁을 그린 압수수색 르포리타주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부터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까지 만나볼 수 있다.

18일 개봉하는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는 5·18민중항쟁의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치열했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80년 5월 광주를 꾸준히 카메라에 담으며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 감독의 네 번째 장편이다. 미국 전역에 5·18을 알리면서 모이게 된 사람들과 조직 '한정련'을 만드는 과정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품물을 치며 거리에 나가고, 타민족과 연대해 1989년 북한에서의 국제영화대행진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발자취가 담겨있다.

영화는 18일 오후 5시 18분에 첫 상영되며, 23일에는 입인자 독립서점 소년의 서 대표의 진행으로 김경자 감독이 참석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열린다. 14일 개봉한 '케이 넘버'는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입양인들이 조각된 서류와 감춰진 기록들을 추적하며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K-추적멘터리다. 시간과 국경을 넘어 진실을 하나씩 밝혀가는 과정을 몰입감 있게 그려내는 동시에, 해외 입양의 구조적 모순을 깊이 있게 짚어낸 완성도 높은 작품이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관객상,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과 열혈스테프상을 수상하며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독립영화로 떠올랐다.

같은 날 개봉한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은 뉴스타파와 윤석열의 7년 전쟁을 그린 사상 최초 압수수색 르포리타주로 윤석열의 폭압과 뉴스타파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스틸컷.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스틸컷.

응전, 탐사언론이 내란 우무머리에 어떻게 맞서왔는지를 담고 있다. 저널리스트로 뉴스타파 대표를 지낸 뒤 현장 기자로 복귀한 김용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뉴스타파를 겨냥해 검찰이 보여준 초유의 압수수색과 등 비판언론을 향한 악랄한 언론탄압의 실체를 보여준다.

14일 개봉한 또 다른 작품 '다시 만날, 조국'은 검찰 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정치 여정에 나선 정치인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불꽃같은 연대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시점부터 검찰 개혁을 위해 나선 그와 그의 가족을 겨냥한 검찰 세력의 의도적인 수사, 그리고 언론의 집요한 공세 속에서 맞은 절망의 시절을 생생히 담아낸다.

이밖에 '2025 한국영화아카데미'의 발견으로 평가받는 류연수 감독의 장편 데뷔작 '보이 인 더 풀',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영화로 주목받는 '자 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도 절찬리 상영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 '눈부신 오월' 예술로 꽃피운 광주 정신

亞문화전당, 18~27일 ACC 일원서 '오월문화주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는 18~27일 열흘 동안 ACC 일원에서 '오월문화주간'을 펼친다.

ACC는 이번 기간 동안 동시대의 아픔을 나누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공연, 교육,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오월문화주간'의 시작을 여는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5·18민주화운동의 치열했던 10일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전남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실감나게 전달한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공연의 중요 역할로 참여하며 그날의 현장을 공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관객들의 공연 관람을 돕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자 공연 관람과 5·18역사기행이 포함된 '메모리얼 투어' 프로그램을 15~16일 에 이어 17~18일까지 두 차례 운영한다.

8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열린다. '꽃

장'은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전쟁 속 무너져버린 일상을 피해 깊은 잠에 빠져든 소녀 마리의 이야기다. 24~25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가 24~25일 ACC 열린마당에서 진행된다. 24일에는 놀이매니저의 '연젠가 봄날에' 마당극이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열리며, 이어 25일에는 극단 세이레가 제주4·3을 주제로 한 연극 '오사카에서 온 편지'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기억한다.

24일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이 희생된 오월어머니들의 한을 노래로 승화한 공연이다. 오월어머니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 만든 공연으로, 202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마다 전 국민과 오월의 가치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혜씨가 참여해 오월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올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일본 오사카 공연도 예정돼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는 18~27일 열흘 동안 ACC 일원에서 '오월문화주간'을 펼친다. 사진은 '2024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모습.